

# 원작 뒤에 숨어서 또 다른 세계 창조하는 번역가들

언어의 지평선 넓혀온 번역가를 찾아서

번역가는 '필경사'와 '창작자' 사이에서 언어의 몸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일을 자처하고 나선 이들이다. 그들은 두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우리는 그들의 노동으로 또 다른 세계의 문턱에 들어선다. 원작의 뒤에 숨어서 그것을 빛내주는 번역가들의 속내를 들어본다.

## 학계의 지혜 모은 표준번역 시급해

현대실학사 정해령 대표

《성호사설정선(전3권)》《다산논설선집》등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저서를 현대어로 옮기고 펴내온 현대실학사 정해령 대표(63)는 번역을 “중이 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서의 중요한 선택”으로 본다.

“요즘 우리 생활과 학문을 보면 미국 사람 중 노릇 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가꾸은 교양과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저항 없이 외국 저질문화를 받아들인 거죠.”

“읽히지 않는 책은 쓰레기일 뿐”이라는 게 정대표의 기본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를 통과하면서 대대적으로 고전들을 번역했고 그걸 대중화했다. 정대표는 “요즘 들어 수익성이 없다는 핑계로 모두 고전을 외면한다”며 그건 “나라가 망할 조짐”이라고 비판한다.

고전 번역을 위한 여건은 점점 어려워진다.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익힌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영영 우리 문화유산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정대표는 경고한다.

그는 ‘표준번역’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서삼경을 예로 든다면, 그 분야에 정통한 학자들이 모두 모여, 역대 중국의 뛰어난 연구성과를 끌어 모아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 다음 중국학자들의 학설과 비교 검토해 주석서를 편찬하고 다시 학술서와 일반교양서로 나뉘어 번역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보완해야 합니다. 표준번역서가 나올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서삼경을 우리 것으로 소화할 수 있고 중국에도 더이상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 수많은 주석과 해석 더듬는 고역의 과정

단국대 독문과 천병희 교수

천병희 교수(63)는 독일에서 그리스어와 문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온 후 꾸준히 고대 그리스어 서적을 번역해왔다. 그의 첫 번째 번역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문예출판사)이지만 주력분야는 문학이다. 지금까지 《소포클레스 비극》《아리스토파네스 희극》《아이스퀼로스 비극》 등 20여종을 번역했다.

천교수가 번역전선에 뛰어든 1960년대 후반, 국내에서 그리스 문학작품의 희랍어 원전 번역은 없었다. 철학과 달리 그리스 문학이 국내 대학에 자리잡지 못한 탓이다. 그리스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동사변화가 심해, 동사의 원형을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리스어 번역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책상 앞에는 노트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펴낸 원전, 원편에 주석서 두세권, 오른쪽엔 영역이나 독역본 두세권을 놓고 일일이 대조합니다. 글자, 문장 하나하나를 전부 더듬어 해석의 차이들을 비교하다 보니 작업이 더디고 힘들지만, 오역은 쉽게 안나오죠.”

천교수는 이웃나라의 예를 들어 번역의 가치와 필요성을 역설한다. 중국 남북조 시대 구라마슈의 역경활동이 대표적인데, 《법화경》을 비롯해 그가 한역한 대승불교 경전들은 중국 대승불교의 터전이 됐으며, 지금까지 널리 읽히고 있다고 한다.

## 얕과 삶이 통합된 번역어 만들어야

한국외대 철학과 이기상 교수

국내에 하이데거 철학을 번역 소개해온 이기상 교수(56)는 프랑스 철학이 20세기 중반까지 독일철학의 야류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독일어 개념을 그대로 불어로 옮겼을 뿐이었죠. 그런데 푸코, 데리다 등의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프랑스의 고유한 일상어로 철학하고, 그들만의 철학적 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서야 프랑스 철학은 근대화될 수 있었죠.”

이기상 교수는 일상어 번역을 가장 중요시한다. 기존 철학서들의 번역



어는 대부분 한자였다. 하지만 독일관념을 중국관념으로 대체시켜 봤자 결국 “앞 따로, 앞 따로” 되는 게 필연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존재와 시간》을 최대한 일상어로 옮기려 노력했다. ‘괴투성’ 처럼 어색한 한자어들은 모두 ‘내던져져 있음’ 같이 그 말에 맞는 상황이나 이미지가 떠오르게 풀었다.

이교수는 번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대학마다 박사후과정이 생겨나 연구보조비로 개인당 1천5백만원 가량 지원되는데, 이교수는 이걸로 논문보다는 제대로 된 전공도서 한권을 번역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말한다.

### 고전의 품위 살리는 정확한 번역

서울대 중문과 김학주 명예교수



김학주 교수(69)는 유가경전과 제자백가서를 순수한 우리말로 옮긴 국내 최초의 인물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번역서들이 있었으나 엄밀히 말해 한자를 한글로 치환해 토씨를 단 수준이어서 번역이라 하긴 힘들고, 또 대중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가 1960년대 후반에 번역한 《서경》(광문출판사)을 통해 비로소 한국 대중들은 중국 고전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중국고전과 한국고전을 번역하는 데, 기술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경전류는 고어가 많아 훨씬 힘들죠. 그런데 중국고전이 우리 선조들의 문장보다 자연스럽다는 점은 지적할 만합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언어여서 그럴테죠.”

김교수는 번역이 “끊임없는 갱신의 작업”이라고 말한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의식과 말에도 조금씩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 또한 정년퇴임 후 기준에 번역했던 원고를 다시 교정보고 있다. 강의하다가 발견한 오류, 추가해야 할 부분, 유교 경전에 대한 본토 권위자의 재해석 등을 모두 참고해야 한다.

“현재 고전번역의 문제점은, 너무 대중들의 입말에 맞춰 고전의 품위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은 원문과 함께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 왜곡된 아랍상 번역 통해 바로잡아야

아랍문학 박사 문애희씨



— 아랍어 서적을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류 언어권을 통해 한국에 형성된 아랍의 왜곡된 걸모습은 일반인의 관심을 막아 버려 아랍학 연구자들이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번역은 쌍방 통행로다. 아랍 서적을 국내에 알리고, 한글 서적들을 22개국 아랍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번역이다.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 아랍어 서적 가운데 꼭 번역돼야 할 책들은?

“아랍 고전들은 역사서, 각 시대를 풍미한 시인들의 시선, 신비주의자들의 시 명상록, 서한문학, 전기문학, 민담집, 구술문학, 이집트나 이라크 등 각 지역의 고대문학 등이 소개될 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조금씩이나마 정규적으로 소개할 지면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고전의 경우 작품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중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만한 현대물부터 번역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 — 번역관이 있다면?

“다른 언어권의 문화와 문학을 접하면 그들의 삶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타자를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알겠는가. 한 한국인의 삶이 아랍 번역서에 따라 변화하거나 한 아랍인의 좌절이 한국으로 건너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지. 서로의 창조력에 영감을 줄지. 언어를 뛰어넘는 공감대 형성. 그런 기대감에 나는 아랍 문학을 번역하고 있다.”

### 이론과 언어능력 동시에 갖춰야 하는 어려움

과학 전문 번역가 이충호씨



### — 과학책 번역의 요즘 경향은?

“단행본 출판시장의 위축으로 일반 과학책 번역은 크게 줄었다. 과학책 출판에 의욕적이던 출판사들도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다. 과학 출판은 과학의 발전 경향을 따라가게 마련이라, 앞으로 생물학과 유전공학 관련 분야가 주로 소개될 것 같다. 하지만 생물학이나 유전공학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 과학책 번역의 특징은?

“과학 이론을 잘 몰라 전혀 얼토당토않게 의미파악하는 경우가 잦다. 또, 항상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정리해주는 대표기구가 없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제각각으로 옮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 — 국내 과학책 번역의 수준은?

“과학 전문 번역가가 부족하다. 과학 이론뿐 아니라, 문장을 제대로 쓰는 법, 역사나 철학에 대한 상식, 맞춤법 등을 두루 알아야 하는데, 준비가 덜 된 분들이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 — 번역관이 있다면?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문장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역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원문을 직역해서 뜻이 통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믿게 됐다.” —강성민 기자